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U.S. Daily Briefing

문의 : 워싱턴무역관(seogil.chang@kotra.or.kr) 2023.06.02.(금) 제23-061호

◈ [Focus] RE100 연차보고서, 회원사 재생에너지 전환 성과 분석
◈ [What's News]
· (해외투자) 미 재무부, 중국 아웃바운드 투자 신규 행정명령 추진
· (무역협정) USTR, 미국-대만 무역 이니셔티브 첫 무역협정 타결 발표
· (IRA) 동남아 국가들, IPEF 통해 미국 IRA 핵심광물 원산지 인정 희망
· (친환경) 미국-EU, 녹색공공조달 부문 협력 강화 약속
◈ [Top Headlines] 주요 언론사 오늘의 헤드라인

Focus

(친환경규제) RE100 연차보고서, 회원사 재생에너지 전환 성과 분석

1. RE100 개요 및 현황

□ **(개요)** RE100은 '14년 영국 소재 **다국적 비영리기관** 'The Climate Group'과 'CDP'가 **공동**으로 **창설**한 **글로벌 이니셔티브**로서,

○ 전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와 저탄소 경제로 전환을 목표로,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력**을 **'50년까지 전량 재생에너지***로 **대체** 목표

*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 풍력, 수력, 지열 등 (원자력 제외)

□ **(회원)** '23년 현재 구글, 나이키, 애플, 이케아, 도이체은행 등 전 세계 **175개국**에서 영업 중인 **글로벌 409개 기업**이 **회원**으로 참여 중

○ **RE100 회원사**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조건**으로는,

- (1) 영향력 있는 기업, (2) 100%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공개 선언, (3) 전체 운영은 온실가스(GHG) 프로토콜에 따라 정의, (4) 자회사를 포함해 캠페인 동참, (5) 최소 목표 달성 일정*을 포함해 신뢰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전략 수립 (6) 매년 RE100 재생에너지 전환 전략과 진행 상황 보고 등

* 최소 '30년까지 60%, '40년까지 90%, '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사용 달성

○ **우리나라 기업 32개**가 **RE100 회원**으로 **참여 중**(5월 말 기준)이며,

-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SK텔레콤, 아모레퍼시픽 등 민간 기업 뿐만 아니라 한국수자원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기업도 동참

2. RE100 성과 (2021.1월~12월 집계 기준)

□ **(개요)** RE100 주관단체 CDP는 **올해 1월 RE100 연차보고서 공개**

○ CDC는 **355개 회원**을 **상대**로 **정보 공개**를 **요구**했고, **응답한 334개 기업** 정보를 토대로 **'21년 동안 RE100 성과 집계** 발표

□ **(전략사용)** RE100 **회원사**들의 **재생에너지 사용**은 **지속 확대 중**

○ RE100 전체 회원사가 **'21년** 한 해 동안 **사용한 전력 총량**은 **376 TWh**에 달하며, 이는 **전 세계 전력 소비량**의 약 **1.5%**에 해당

- 전체 회원사의 **평균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률**은 **49%**(184 TWh)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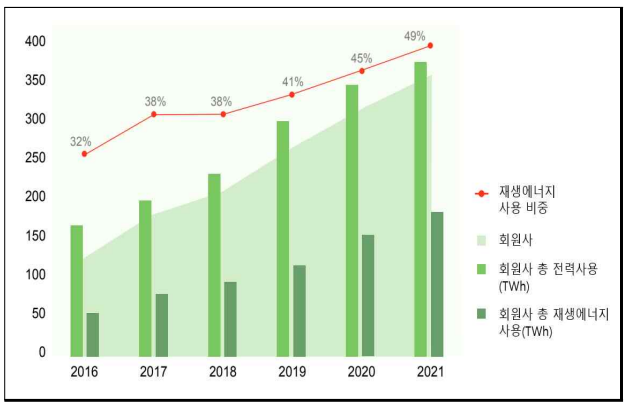
* 연도별 : '16(32%) ⇒ '17(38%) ⇒ '18(38%) ⇒ '19(41%) ⇒ '20(45%) ⇒ '21(49%)

< RE100 연차보고서 '21년 프로파일 >

집계 기간	'21.1월~12월
설문 요청 대상기업	355개
응답 기업	334개
총 전력 소비량	376 TWh
재생에너지 소비량	184 TWh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	49%

[자료] RE100 연차보고서(2022)

< RE100 회원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 >



[자료] RE100 연차보고서(2022)

□ **(지역별)**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원사**가 **가장 많으나**, 유럽·북미에 비해 **재생에너지 사용률**은 **크게 저조**한 것으로 조사

○ **(회원)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본사**를 둔 **회원사**가 **총 130개**로 가장 많으며, **유럽 127개**, **북미 98개** 등으로 집계

- 국가별로 **미국 소재 기업**이 **94개**로 가장 많고, 일본(66개), 영국(46개), 스위스(17개), 대만(16개), 호주(16개), 한국(15개), 독일(15개) 등 순

○ (재생에너지) **유럽 회원사**의 **재생에너지 사용률**이 **평균 85%**로 가장 높고, **북미 지역은 66%** 기록, 아태 지역의 재생에너지 사용은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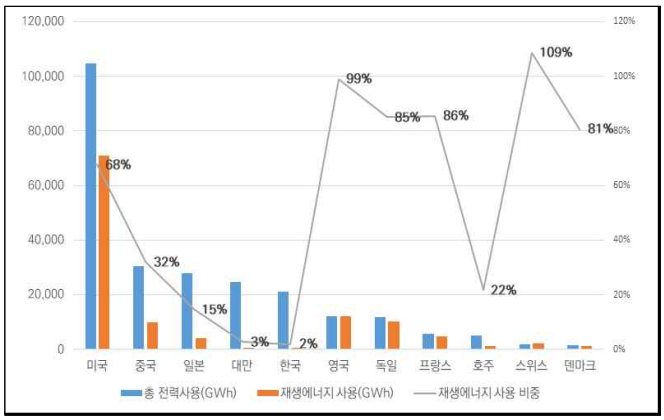
- **국가별**로 **미국 66%, 영국 99%, 독일 85%, 프랑스 86%** 등 **양호**한 수준이나, 중국, 일본, 대만, 한국 등 아시아 지역 국가는 저조

< RE100 회원사 지역분포 (본사 소재지) >

	'21	'20	'19	'18	'17	'16
유럽	127	124	111	95	77	65
아태	130	201	68	54	26	9
북미	98	89	82	71	53	42

[자료] RE100 연차보고서(2022)

< RE100 회원 재생에너지 사용률(2021) >



[자료] RE100 연차보고서(2022)

□ **[업종] 제조업**과 **서비스업** 관련 기업이 **전체 회원사 중 절반** 차지

○ 회원사 중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이 **69개, 서비스업 133개**, 식음료 및 농업 31개, 소재(materials) 30개, 소매 26개, 인프라 24개 등 집계 ('21년)

○ **제조업의 전력 사용**이 **112 TWh**로 가능 높으나, **재생에너지 사용률**('21년)은 **32%**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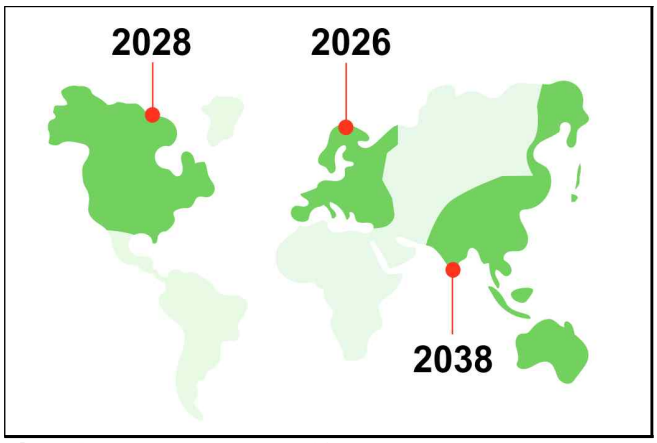
* 의류(65%), 서비스(60%), 바이오·제약(52%), 식음료 및 농업(47%) 등

□ **[목표]** 전체 **회원사가** 제시한 **100% 재생에너지 전환 목표 연도**는 **'31년**으로 전년 조사 보다 1년 미뤄짐. * 신규회원사 평균 목표 연도는 '36년

○ 지역별 RE100 목표 연도는 **유럽('26년), 북미('28년), 아태 지역('38년)**

○ 업종별로 **제조업의 RE100 목표 연도**가 가장 늦은 '36년이고, 가장 빠른 업종은 국제기구('24년)와 서비스('27년), 의류('27년) 등

< RE100 달성 목표 연도(지역별) >



[자료] RE100 연차보고서(2022)

< RE100 달성 목표 연도(업종별) >

연도	업종
2024	국제기구
2026	교통 서비스
2027	서비스, 의류
2031	소매, 바이오·제약, 숙박 여객
2032	식음료·농업
2033	소재
2036	제조, 인프라

[자료] RE100 연차보고서(2022)

□ **[유형]** 회원사 **재생에너지 조달방식**으로 **전력구매계약**(PPA) **급증세**

○ RE100 달성 수단은 크게 (1) 회원사가 직접 생산하는 **자가 발전**, (2) 재생에너지 **인증서를 별도 구매**하는 방식(Unbundled EAC), (3) **발전소**로부터 **재생에너지**를 **구매**하는 방식, (4) **전력구매계약**(PPA)*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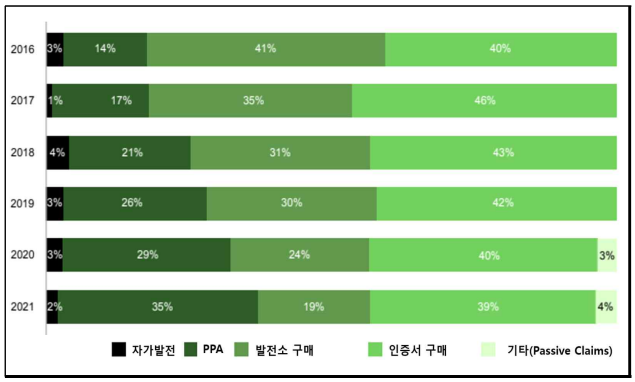
* 전력구매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s)은 전기사용자와 발전사업자가 정해진 계약기간 동안 사전에 협의한 가격으로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하는 직거래 제도

- '16년 14%에 불과했던 **PPA 방식**이 **'21년에는 35%로 급성장**했으며, 발전소로부터 구매(Contract with suppliers)는 동 기간 41%에서 19%로 감소

○ **PPA 방식**이 **북미에서 약 50%**, 유럽에서 20%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아태 지역에서는 인증서 구매방식이 가장 널리 사용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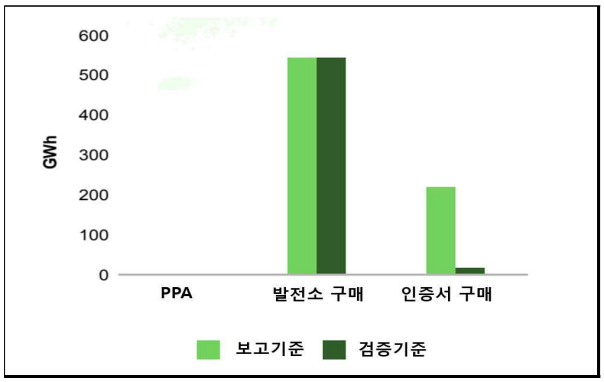
- 동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PPA 조달**은 **보고되지 않았으며**, 근래 PPA 제도 도입에 따라 **앞으로는 해당 데이터가 집계될 것**이라고 **부연**

< RE100 회원 재생에너지 조달방식 >



[자료] RE100 연차보고서(2022)

< 한국 회원의 재생에너지 조달방식 >



[자료] RE100 연차보고서(2022)

□ **(기업)** 미국 기업 중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바이오젠, 메타** 등이 **재생에너지 사용 100% 달성**을 **보고**하며 친환경 기업으로서 성과 과시

○ **미국 제조 분야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률 평균**은 약 **59% 수준**으로, 인텔 80%, GM 25%, DELL 테크놀로지 55%, HP 54% 등 보고

- 다수 미국 기업들은 **공급망**까지 **RE100 동참을 확대**하기 위해 **협력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독려**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중

○ '23년 현재 RE100에 가입한 한국기업은 총 32개이며, 이 중 **'21년 이전 회원 가입**한 **15개 기업**이 **'22년 연차보고서 설문**에 **응답**

- 15개 응답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률 평균**은 **5.84%**로 **저조** 평가

▪ 작성자	워싱턴무역관 이정민
▪ 자료원	2022년 RE100 연차보고서(2023.1월), CDP RE100 Reporting Guidance 2023

What's News

□ [해외투자] 미 재무부, 중국 아웃바운드 투자 신규 행정명령 추진

○ (개요) 美 재무부, 대중 아웃바운드 투자 모니터링 행정명령 발표 예고 (5.31)

- 재무부, 근시일 내 행정명령을 통해 △첨단 마이크로칩 △인공지능 △양자컴퓨터 등 3개 기술 분야에 대한 대중 투자 모니터링 체계 수립 예정
- 이와 별개로 의회는 대중 아웃바운드 투자 모니터링 법안 입법 추진

  * National Critical Capabilities Defense Act (해외투자 심사 법안)

○ (상세) 첨단기술 분야 대중 투자 제한 필요성 대두

-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한 재무부 차관보 폴 로젠은 중국의 군사·첩보 분야 등에 사용되는 위 세 가지 기술에 대한 미국 기업의 투자를 제한하는 체계를 수립 중이며, 조만간 행정명령으로 공표 예정이라고 밝힘.(5.31)

  * 이를 위해 지난 4월, 레이몬도 상무장관은 500만 달러 예산을 요청한 바 있음

- 5월 G7 공동성명에서 대중 투자 감시·통제와 함께 리스크를 절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

○ (반응) 행정명령 상세 내용과 공표일 불확실, 규제 확대 가능성도 존재

- 행정명령의 세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공개 시점은 불명확
- 언론은 이번 재무부 발언이 지난 2월 백악관이 규제 기술을 청정에너지 및 바이오 분야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비해 완화된 것으로 해석
- 로젠의 발언 직후 상원 외교위원장 밥 메넨데스는 재무부가 언급한 것보다 더 확장된 규제를 담은 법안이 필요하다고 언급

▪ 작성자	워싱턴무역관 한유림
▪ 자료원	Politico(5.31), South China Morning Post(6.1)

□ (무역협정) USTR, 미국-대만 무역 이니셔티브 첫 무역협정 타결 발표

○ (개요) 미국-대만 간 경제 · 무역 관계 강화를 위한 이니셔티브 첫 합의

- 대만의 이중과세 이슈 및 무역상품 관세 조정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전통적인 무역협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합의로 평가
- 경제에 실질적 영향은 크지 않지만, 미국은 작년에 합의한 미국-대만 이니셔티브의 첫 진전이자 외교적으로 의미 있을 것이라 평가

○ (상세) 세관 관리, 무역 활성화, 반부패 등을 다룬 낮은 수준의 무역협정

- 무역 과정의 간소화 및 전자화를 통해 미국 상품이 대만에 쉽고 빠르게 유통될 수 있게 하는 세관 관리 및 무역 활성화 조항과 USMCA 협정에서 확립된 반부패 체계를 바탕으로 한 내부 고발자 보호 강화 및 자금세탁 방지 강화 조항 포함
- 양국 간 주요한 문제인 미국의 대만 반도체 회사 이중과세 방지 조치는 이번 무역협정에서 다뤄지지 않았으며 이후 별도로 미 재무부와 논의 예정
- 미국과 대만은 작년 IPEF 협상 개시 직후 양측 간 무역협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으나 전통적인 시장 개방 조항이 미비해 미국 기업들은 불만을 제기한 바 있음

○ (반응) 中, 이번 협정에 반발, 美에 대만과 공식적 교류 중단 촉구

- 중국은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주권적 함의가 있는 미국과 대만의 공식적인 협정 및 협상 중단을 촉구하며 즉각적인 반발을 표함
- 위 협정은 이번 주말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고위급 세계 안보 정상회의(샹그릴라 연례 국방 정상회담)을 앞두고 체결되어 미중관계를 더욱 경색시킬 요소로 평가
- 또한, CNN은 샹그릴라 국방회담에서의 미-중 간 국방장관 회동이 좌절되었음을 보도하며 중국이 미국의 초청을 거절했다고 밝힘

▪ 작성자	워싱턴무역관 박소현
▪ 자료원	USTR(6.1), CNN(5.31), 워싱턴포스트(6.1)

□ (IRA) 동남아 국가들, IPEF 통해 미국 IRA 핵심광물 원산지 인정 희망

○ (개요) 인니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 IRA의 핵심광물 원산지 인정 희망

- 폴리티코에 따르면 최근 IPEF 협상에서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IPEF 타결 시 자국산 핵심광물도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인센티브 수혜 대상으로 인정해달라 요청

○ (상세) IPEF 협상 진전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 국내 여론과 외교 사이 균형 고민

- 최근 IPEF 회담에서 아일랑가 하르타토(Airlangga Hartarto) 인도네시아 경제조정장관은 IPEF 장관회의에서 핵심광물협정을 IPEF의 무역 부문에 추가할 것을 제안했으며 다른 일부 동남아 국가들도 지지 의사 표명
- 리튬, 니켈, 망간, 흑연, 코발트 등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을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조달한 경우에 한해 미 IRA 친환경 차량 세액공제 자격이 부여됨.
- 폴리티코는 바이든 행정부가 말레이시아, 필리핀과 같은 핵심광물 생산국의 추가적 이득과 청정에너지 전환을 통한 미 제조업 활성화 공약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할 것으로 분석
-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핵심광물 협정이 IPEF 회담의 일부가 될 것인지 여부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며 IRA 인센티브 수혜 여부는 궁극적으로 재무부가 결정한다고 언급

○ (참고) 인도네시아는 니켈, 주석, 발전용 유연탄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전략적 협력 중요성이 높은 국가

- 양국 간 연례 에너지 포럼을 개최 중이며, 특히 최근에는 핵심광물을 포함한 협력 확대·고도화를 위해 '「산업협력 2.0」 기반 구축'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23.5.15)

  * 매장량('21) : 니켈 21백 만톤(세계 1위), 주석 80만톤(세계 2위)

  * 수출량('21) : 발전용 유연탄 454백 만톤(세계 1위), 천연가스 10.8백 만톤(세계 8위)

▪ 작성자	워싱턴무역관 김준희
▪ 자료원	폴리티코(6.1)(6.2)

□ [친환경] 미국-EU, 녹색공공조달 부문 협력 강화 약속

○ (개요) 미국-EU TTC 회담 개최, 녹색공공조달 협력 강화

- 미국-EU 기술무역위원회(TTC) 4차 회담(5.30~31) 개최, △인공지능 △핵심 광물 △친환경 기술 △청정 공급망 관리 등 여러 논의 진행
- 청정 공급망 및 녹색공공조달 정책과 관련해 미국 및 EU의 모범 사례 공유 및 녹색 공공조달 정책에 대한 공동 협력 강화 약속

○ (상세) 이번 여름까지 공동 카탈로그 발행, 더 나은 정책과 관행 마련 노력

- 미국-EU 양 측은 이번 여름까지 공동 카탈로그*를 발행하기로 발표했으며 다음 5차 TTC 회의 전인 6개월 이내 녹색 공공 조달 정책 이니셔티브도 개시하기로 합의

  * Publication of a joint catalogue of best practices on green public procurement

- 공동성명문에서 "(목표는) 우리의 공동 환경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 조달에서, 환경을 고려한 더 나은 정책과 관행(better policies and practices)을 마련하는 것"
- 녹색 전환 인센티브를 위한 투명성 제고, 각각의 청정기술 인센티브와 제3국 비시장정책 및 공동 관행에 대한 투명성 제고 노력도 약속

○ (비고) 폴리티코, 미국-EU 간 녹색공공조달 정책의 국제적 확대 가능성 언급

- 미국-EU 간 녹색 공공 조달 공동 이니셔티브로 양 파트너 간 녹색 공공 조달에 대한 기준 및 접근 방식의 유사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후 WTO 등 유사한 내용이 국제 조약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언급됨.

▪ 작성자	워싱턴무역관 김준희
▪ 자료원	USTR TTC 공동성명문(5.31), 폴리티코(5.31)

Top Headlines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Wall Street Journal	Dow Jumps More Than 700 Points, Bond Yields Climb (다우지수 700포인트 급등, 채권수익률 상승)
	증시와 채권수익률, 5월 일자리 보고서 발표 후 상승세 기록. 월가의 기대보다 더 높은 수치를 기록. 미국 경제 전반적으로 채용이 강세.
The Washington Post	U.S. employers added 339,000 jobs in May and unemployment rose (미, 5월에 신규 일자리 339,000개 창출... 실업률 상승)
	5월, 339,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 활성화된 노동시장이 경제가 침체국면으로 접어드는 것을 방지 중. 그러나 실업률이 증가한 것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
New York Times	Debt Limit Bill Heads to Biden to Sign After Late-Night Senate Vote (지난밤 상원 표결을 넘어, 바이든 서명만 남겨둔 부채한도 법안)
	미 국방부 예산이 충분치 않냐는 우려가 있었으나 합의 끝에 빠르게 표결처리. 바이든 대통령은 신속하게 법안 발효를 서명하겠다고 약속.
CNN	Fitch warns it could still downgrade America's credit rating (피치, 부채한도 인상에도 불구하고 미 신용등급 조정 가능하다 언급)
	부채한도 협상 통과에도 불구하고 피치는 미 신용 등급을 부정적 관찰 대상으로 유지. 9월말 경에 하향조정 여부에 대해서 결정할 전망
USA Today	'Dangerous precedent?' How the averted debt ceiling crisis could become new Washington norm (위험한 선례? 가까스로 회피한 부채위기, 워싱턴의 새 표준 되나)
	공화당, 디폴트를 무기로 바이든 대통령의 양보를 이끌어내. 민주당, 디폴트의 무기화를 위험한 선례로 비난. 바이든, 부채한도의 위헌성을 추후 검토할 수도

* 미국 동부시간 6월 2일 16시 기준

Notice

□ 주요 경제·통상 일정

* 주요 경제통상 일정은 매주 화요일 공개됩니다

□ 워싱턴무역관 공지사항

◈ 주요 경제통상 현안을 빠르게, **경제통상리포트** (과거 리포트 : ☞해드림 글로벌이슈모니터링☜)

발간번호	제 목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발간시기
US23-17	IPEF 5월 장관회의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	2023.06월
US23-16	美 화석연료 발전소 배출기준 강화안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	2023.05월
US23-15	6가지 통계로 보는 미 외국인직접투자(FDI) 동향 및 시사점	2023.05월
US23-14	미국 반도체 R&D 지원 정책 방향	2023.04월
US23-13	미 환경보호청(EPA) 차량 배출규제 강화안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	2023.04월
US23-12	미국 EV 핵심 광물 공급망 현황 및 현지 기관 정책 제안	2023.04월
US23-11	바이든 행정부의 제조업 탈탄소화 지원정책 현황	2023.03월
US23-10	2024년 美 대통령 예산안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	2023.03월

◈ 경제통상 이슈에 대한 워싱턴무역관 심층 르포, **기획조사** (과거 보고서 : ☞해드림 심층보고서☜)

발간번호	제 목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발간시기
US22-기획7	미국의 바이오제약 산업 육성 정책과 시사점	2023.01월
US22-기획6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본 미국 에너지·기후변화 정책 심층 분석 및 시사점	2022.12월
US22-기획5	2022년 미국 중간선거 결과 분석 및 시사점	2022.12월
US22-기획4	미국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 동향 및 시사점	2022.11월

◈ 전문가가 읽어주는 경제통상 이슈, **코트라 인터뷰 시리즈** (과거 인터뷰 : ☞유튜브 KOTRA TV☜)

인터뷰번호	제 목	바로가기
코인시-12 (2023.5.31)		COMING SOON
코인시-11 (2023.5.8)		